

# 광주 기독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 ‘유네스코 사전자문 지원사업’ 2개소 선정 예비평가 절차 면제 등재기간 획기적 단축

광주 남구 기독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Upstream)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교기지’, ‘별서정원과 원림’ 등 2개소가 선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



광주 남구 기독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8일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남구 오원기념각, 북구 환벽당. <광주시 제공>



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역사자산이다.

‘한국기독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거점이다.

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원

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교기지가 형성돼 있다.

한국기독교기지는 문맹률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사상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

기독교기지를 보유한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기독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15-16세기 조선 시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으로 구성된 인문·자연의 문화경관이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취가정, 담양 소재원·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특히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 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재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KIC 챌린지 레이스’

### 11-12일 7개 종목 120여대 역동적 주행 서킷투어·카트체험·가상레이싱 등 다채

“2026 KIC 챌린지 레이스” 개막전이 오는 11-12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orea International Circuit·KIC)에서 열린다.

전남도가 모터스포츠 대중화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KIC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행사로 카트체험·가상레이싱 등 가족 참여형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이 기존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를 아마추어 선수의 프로 진출 확대를 목표로 새롭게 개편한 대회다. 특히 올해는 총 4전 중 2전을 아마추어 대회 최초로 F1 코스(5.6km)에서 개최하게 돼 모터스포츠 관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F1 코스는 국제대회나 ‘전남GT’ 등 대규모 대회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아마추어 레이서도 세계적 수준의 코스를 주행할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라운드별 포인트를 합산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전문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회 질을 한 차원 높였다.



성희룡·성폭력 예방교육이 열린 8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성교육센터 김형심 대표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이번 개막전에는 레이싱 전용 차량인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벨로스터N, 토요타 GT86 등 다양한 국내외 차량 120여대가 7개 종목에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주행을 선보인다.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지난해 도입한 문화행사 브랜드 ‘모토조이(MOTO JOY)’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꾸며 지역 축제로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선수들과 차량을 눈앞에서 만나는 그리드워크를 포함해 서킷버스투어, 카트체험, 가상레이싱, 무선조종 자동차 체험, 실내놀이방 등 다채로운 무료 프로그램이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SLTV Sports)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상세한 정보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공식 누리집(www.koreacircu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본격 운영

### 도, 155개 강좌 2천64명 확정

전남도는 8일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우도록 찾아가는 배달 강좌 프로그램 ‘2026년 전남형 평생학습’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민이 10명 이내의 팀을 만들어 원하는 장소·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시설이 멀어 참여가 어려웠던 농어촌 지역 주민도 집이나 마을회관 등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전남도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재료비를 지원한다.

강좌는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에 돕는 직업교육, 건강·취미·인문학 등 생활교육, AI 활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 도민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4개 강좌에 1천88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47명이 취·창업에 성공하고 30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만족도도 96.44%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의를 거쳐 131개 강좌에 1

천700명 지원을 확정된 데 이어, 3월 2차 신청을 받아 총 155개 강좌에 2천64명 지원을 결정했다.

강석은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까지 배움을 전달하는 사업”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전남도,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 모집

전남도는 8일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해 2026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협약 기간 중 전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체험형 콘텐츠 및 테마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 서비스·콘텐츠 ▲스마트 관광, 예약 플랫폼, 모바일리티 등 기술 융합 ▲테마 숙박, 로컬 라운지 등 시설·인프라 ▲디지털 및 밀키트 등 관광 기념품·미식 분야 등이다. /김재정 기자

#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